

연구보고 2014-06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이윤진 이규립 이정아

머 리 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영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 영어가 만연하고 있다지만, 우리 사회는 엄연히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 환경이란 점에서 “과연, 영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화두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학계에서는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유아발달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모국어 구사도 완전하지 못한 유아에게 조기영어교육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서 유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영어를 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굳이 일찍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교육부의 수시과제로서 2000년대에 국내에서 수행한 유아기 영어교육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문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양 진영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의 유아기 영어교육 현황도 살펴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영어를 스트레스가 아닌 유익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찬반 양 진영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방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II. 국내 선행연구 고찰 및 영어교육 정책 현황	11
1.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연구	11
2.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연구	21
3. 유치원 영어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32
III. 외국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현황	37
1. 일본	37
2. 중국	46
3. 대만	50
4. 소결	53
IV. 결론 및 제언	55
1. 연구요약	55
2. 정책제언	59
참고문헌	63

표 차례

〈표 II-1-1〉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연구 정리	16
〈표 II-2-1〉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연구 정리	26
〈표 II-3-1〉 유치원의 특별활동 금지 지침	33
〈표 II-3-2〉 유치원 영어프로그램 운영 금지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34
〈표 II-3-3〉 유치원 영어프로그램 현행 유지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34
〈표 II-3-4〉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35
〈표 II-3-5〉 언어영역 운영 현황(영어 및 영어외)	35
〈표 II-3-6〉 특성화 프로그램 영어관련 정보공시 통계자료	36
〈표 III-4-1〉 각 나라의 영어교육 정책 현황	54
〈표 IV-1-1〉 국내 선행연구 정리	56

그림 차례

[그림 III-1-1] 영어를 배우는 시기 조사 결과(일본)	39
[그림 III-4-1] 각 나라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강도 정도	53

요 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 유아기 영어교육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 효과 등을 다룬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제언을 모색함.

나. 연구내용

-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고찰함.
- 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 효과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찬반으로 분류하여 면밀하게 분석함.
- 우리나라와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고 EFL 언어 환경을 지닌 일본, 중국, 대만의 최근 유아대상 영어교육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으로써, 국내 선행연구들 중에서 학회지 게재논문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한정하여 수집, 정리, 분석함. 주로 2000년대에 수행한 찬성입장 논문 10편, 반대입장 논문 9편을 면밀하게 분석함.
 -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서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영어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함.

- 해외 사례에 필요한 자료들은 해당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집, 분석함. 번역은 해당 언어를 전공한 전문번역가에게 의뢰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있는 학계 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정하여 연구 전 단계에 걸쳐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정책제언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음.
- 사교육 경감을 위한 캠페인 운동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자문도 구함.

□ 정책실무협의회

- 교육부 수시과제로 진행된 본 과제는 연구초기 단계에서 교육부 담당자와 연구 방법과 연구내용 등 협의하였으며 연구종료 단계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을 함께 모색함.

2. 연구결과

가. 선행연구 분석

□ 유아기 영어교육의 찬성론 입장

- 일상 속에서 영어입력의 양이 제한된 EFL 환경에서도 유아기의 영어교육은 유아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영어교육이 한국어 습득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찍 시작하고 영어노출기간이 긴 유아일수록, 또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모국어와 영어구사능력 모두 긍정적이라는 연구 등 조기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생산됨.
- 그러나 찬성론 입장에서도 과도하거나 주입식의 영어교육을 주장하지는 않음. 주 1, 2회 정도의 통합적 교수방법으로 가르칠 것을 제안하거나, 학원 등의 사교육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영어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

□ 유아기 영어교육의 반대론 입장

- 이 진영에 있는 연구들은 유아기 영어교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은 영어습

득에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굳이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영어 교육의 적절한 시작시기를 만 6세 또는 만 7세로 제안함.

- 유아기에는 영어교육보다는 모국어 형성과 이 시기 필수 과업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모국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등을 제안함.
-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유아의 뇌 발달 저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강제적인’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학습량, 교수방법, 교수내용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필요함.

□ 찬반 양 진영의 공통된 연구결과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찬반 양 진영 연구의 공통점임. EFL 환경에서 ESL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한 집단은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 고학력 부모의 유아들임(서현아 외, 2003; 이귀옥·우남희, 2008b; 황혜신, 2007).
-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유아들의 가변성을 지적할 수 있음.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영어학습 능력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는 반대론 입장의 연구(신동주, 2007)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유아가 처음에는 영어와 한국어 능력 모두 낮았지만, 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만 6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찬성론 연구(황혜신·황혜정, 2000)가 그 사례임.
 -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영어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유아기에 영어사용으로 한국어가 서투를 수 있지만, 이 역시 유아가 성장하면서 그 격차는 줄어들.

〈표 1〉 국내 선행연구 정리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분석논문수 (2000년대 수행)	- 10편	- 9편
연구진 특성	- 10편 3편 연구자 중복	- 9편 중 6편 연구자 중복
	- 연구자 풀(pool)이 적음	

(표 1 계속)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검사도구로 측정(유아용) 설문조사 및 면담(부모용) - 유아대상 검사는 주로 모국어, 영어 유창성 등 언어영역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검사도구로 측정(유아용) 설문조사 및 면담(부모용) - 유아대상 검사는 주로 지능, 창의력, 사회언어적 발달 등 정의적 영역 측정
연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도구 대상 유아수가 반대 입장 연구에 비해 많음. (최대 225명, 최소 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도구 대상 유아수가 찬성 입장 연구에 비해 적음. (최대 142명, 최소 10명)
	- 대개 조사대상 지역이나 기관이 한정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에 일찍, 오랫동안 노출 될수록 영어수준(영어유창성)과 모국어수준 모두 높게 나옴. - 제한된 영어학습 및 영어학원과 같은 사교육 지양의 연구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긍정적 연구가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 6세 또는 만 7세 이후가 시작시기로 적절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초등학교 3학년부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상충될 수 있음. - 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정서적, 심리적, 뇌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을 많이 함 - 유아들의 가변성(연령이 증가하면 영어격차 또는 한국어격차를 극복할 수 있음) 	
향후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강제적인'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학습량, 교수방법, 교수내용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필요 - 영어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구 필요 	

나. 우리나라 유치원 영어교육 정책 현황

- 교육부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로 학부모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해서 방과 후 교육과정 시간에 영어를 포함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허용함. 대신, 교육과정 시간에서는 일체의 특성화 활동을 금지함.
- 최근 총 33,919개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중 문화예술영역 프로그램이 40.6%로 가장 많고 언어영역(영어 포함)이 21.8%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과학창의 프로그램을 가장 적게 운영함.

- 영어가 속해 있는 언어영역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59.0%로 영어가 언어영역의 주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음.
-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영어 프로그램을 영어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실시하고 있음.
- 비용면에서, 영어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 비싸며 국공립보다 사립 유치원의 영어 프로그램 비용이 약 2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남.

다. 외국의 유치원 영어교육 정책 현황

- 일본, 중국, 대만의 사례를 고찰함.
-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영어를 편성한 나라는 없음.
- 대만은 2013년에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중국의 강소성(성도: 남경시)은 이보다 앞서 유아원에서의 영어교육을 금지함. 그러나 '놀이식' 영어교육은 허용함.
- 일본과 중국의 대부분 유치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테두리 안에서 영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의 일부 지역(상해시, 장춘시)에서는 유아원 내에 일반반과 국제반을 동시에 운영함(부모들이 선택함). 국제반에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또는 영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로 수업을 하며 수업료도 일반반보다 2배 이상 비쌌.
- 일본은 2012년부터 소학교 5, 6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 운영하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은 우리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실시함.
- 각 국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의 강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음.



[그림 1] 각 나라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강도 정도

-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들 나라 모두, 학부모들의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시 정도는 대동소이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점과 찬반양론의 내용도 유사함.

3. 정책제언

- 유아기 영어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찬반 양 진영의 연구진이 공동참여하는 국가수준의 중장기 종단연구 필요
 - 찬반 양 진영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의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함.
-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
 -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허위로 공시한 유치원에게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유아에게 적합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진영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음. 유치원의 영어교육 금지라는 강경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놀이식’의 영어교육은 허용함. 그렇다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식’ 영어교육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는 법제정 필요
 -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아기의 영어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한편, 유아가 매일 평균 약 4.9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전, 위생을 비롯한 강사(원어민), 수업료 등을 정비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게 하향화되면서 유아에게 영어는 더 이상 낯선 외국어라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찍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들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연령은 평균 만 3.7세로 보고된 바 있다(이윤진·장명림·김문정·김혜원, 2010: 40). 동일 연구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실시해서’(20.3%)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친숙하게 하려고’(44.5%) 다음으로 2순위로 나왔는데(이윤진 외, 2010: 4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유아들이 영어를 경험하게 되는 주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4개 영역—생활체육, 문화예술, 과학창의, 언어(영어 포함)—중에서 문화예술(40.6%) 다음으로 언어영역이(21.8%)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언어영역에서도 영어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59.0%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교육부 내부자료, 2014a).¹⁾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하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유아기 영어교육의 효과나 발달·성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연령)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그동안 꾸준히 수행되어 왔지만,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정립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없다. 즉,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진행 중이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모국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마송희, 2003; 최지영, 2009; 한유미·조복희, 1999)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능력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마송희, 2008: 228 재인용; 부경순, 2003b; 황혜신·황혜정, 2000), 조기(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민족적 자아개념 형성에는 아무런 관계는 없다(최지영, 2008)는 것을 밝히는 등 유아기 영어교육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반면, 유아기 영어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으며 더 나아가 유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예컨대, 취학 전 영어교육이 초등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영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1) II장의 3절 참조.

영어는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는 연구(신동주, 2007), 모국어 수준이 높은 유아가 영어점수도 높게 나온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처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한 후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우남희·김현신, 2004; 이귀옥·우남희, 2008a), 오히려 영어 사용만을 강요하면 유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리적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며(신의진, 2002) 유아기에 지나치게 영어에 노출되면 창의성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연구(우남희, 2007)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허용하였다(교육부 내부자료, 2014a).

이처럼 방과후 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면, 유치원에서 영어를 허용한다는 메시지와 일부 유치원의 과도한 영어교육을 근절하기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전면금지하면 유치원 밖에서 영어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전문가 집단 간의,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간의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아기 영어교육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와 국외 사례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유아기 영어교육의 정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첫째,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였다.

둘째, 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EFL 언어 환경을 지닌 일본, 중국, 대만의 최근 유아대상 영어교육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유아기 영어교육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으로써, 국내에서 그동안 다룬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유아기 유아교육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정리는 기존 연구들에서 대체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수행한 연구들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외국사례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EFL 언어 환경이면서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유사한 일본, 중국, 대만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현황 자료와 관련 연구들을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교육부로부터 본 연구와 관련된 내부자료 및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전국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자료를 지원받아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있는 학계 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정하여 연구초기단계에는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등의 자문을 받았으며, 완료단계에서는 도출한 정책제언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4회 실시하였다. 연구완료단계에서는 유아기 영어교육을 비롯한 선행학습 중심의 과도한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캠페인 운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였다.

다. 정책실무협의회

본 과제는 교육부 수시과제로서, 연구초기 단계에서 교육부 담당자와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등을 협의하였으며 연구종료 단계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제언을 함께 모색하였다.

II. 국내 선행연구 고찰 및 영어교육 정책 현황

영유아기에 모국어에 관한 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의 누구나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Noam Chomsky의 생득적 습득이론의 요지이다. Chomsky에 의하면, 언어습득 장치는 어린 나이에 활발히 작동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거의 작동하지 않으므로 모국어 발달에 있어서 사춘기 이전이라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제 2언어 습득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사춘기 이후보다는 사춘기 이전에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접하게 된 경우에는 거의 누구나가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다(마송희, 2008: 226).

그러나 이 이론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언어 환경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설명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언어 환경에서는 연구자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수행한 유아기 영어교육 또는 조기 영어교육의 찬성과 반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 유아기 영어교육의 찬반 입장의 연구들은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대략 2000년대에 수행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유치원 영어교육방침을 알아보고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연구

유아기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은 Chomsky의 생득적 습득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유아기 영어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EFL 언어 환경에서도 영어교육이 모국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나 형태를 조작하며 언어의 내용과 형태를 분리할 수 있는 상위언어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유미·조복희(1999)연구로서, 기존의 유아기 영어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영어교육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 2언어능력이 어떤 수준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한유미·조복희(1999)는 두 개

언어사용의 긍정적인 영향은 외국어구사능력이 초기단계인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입력 양이 제한되는 EFL 환경에서도 유아가 긍정적으로 제 2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지해 준다.

부경순(2003b)은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영어교육이 현재 초등영어교육에 미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지역규모별로 초등학교 6곳의 초등학교 3학년 426명을 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두 차례(2002년 3월, 7월)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기본사항, 조기영어교육실태,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반응 등 총 20문항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첫 번째 조사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묻는 항목과 부모의 학력과 영어학습 점검 정도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에 상관없이 3학년에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아동보다 3학년 이전에 영어를 배운 아동이 훨씬 많으며,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 흥미도를 보였으며 초등영어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 영어교육 시간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초등영어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현아·최미현·좌승화·천희영(2003) 연구도 영어교육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410명을 대상으로 취학 전·후 영어교육환경이 현재 영어유창성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아동용 영어 유창성 검사'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취학전 영어교육을 시작한 아동이 영어유창성이 높았으며, 취학전 영어교육을 시작하고 이후에도 지속한 아동이 지속하지 않은 아동보다 영어유창성이 높았다. 또, 남아보다는 여아, 모의 학력, 모의 영어교육관심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영어유창성이 높게 나왔다.

장유경·엄윤주(2003) 연구는 주당 15분 정도의 '제한된 영어학습경험'이 유아의 상위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만 5세 유아를 크게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유아 집단 1(17명), 집단 2는 주 1회 약 15분의 놀이식 방문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유아 18명, 집단 3은 집단 2의 영어학습과정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병행하는 유아 18명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국어어휘력검사, 영어과제, 상위언어과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1의 수행점수가 가장 낮고, 집단 3의 수행점수가 가장 높았다. 상위언어과제도 집단 1이 가장 낮았다. 각 집단 간의 한국어 어휘력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나, 주 1~2회의 15분~20분의 제한적인 영어학습은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송희(2003)는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이 모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어교육 경험의 차이가 있는 만 4, 5세 유치원 재원아 총 46명을 대상으로 모국어 어휘력, 사전·사후 검사로 실시된 두 차례의 영어 어휘력, 상위언어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크게 학원수강경험과 동화읽기경험 두 가지 모두 경험한 유아 15명(33%: 집단 1), 학원수강경험만 한 유아 7명(15%: 집단 2), 동화읽기경험만 한 유아 10명(22%: 집단 3), 두 가지 경험 모두 하지 않은 유아 14명(30%: 집단 4)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 1, 2, 3 유아들의 상위언어능력, 모국어 및 영어 어휘력이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 4 유아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집단별로는 영어교육을 학원이나 소그룹과외(집단 2)의 사교육보다는 부모가 집에서 영어동화책을 읽어준 유아들(집단 3)의 영어 어휘력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에게 주 1, 2회 정도 영어(외국어)교육은 모국어발달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언어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느낌으로서 상위언어능력이 발달되어 모국어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앞선 한유미·조복희(1999) 연구에서 검증한 신역치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아들의 지능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2008년도의 마송희 연구는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지 않은 유치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외부강사 대신 유아의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찬성과 반대의 방대한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 실태, 연령과 외국어 학습에 관한 이론 및 뇌과학연구, 유아기 영어교육의 효과 등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문헌분석을 면밀히 하였다.

하연희·천희영(2005)은 유아교육의 시작연령과 교육기관종류에 따라 유아의 모국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3곳의 유아 70명과 유치원 2곳의 유아 155명을 대상으로 언어능력검사와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모국어와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였다. 언어능력검사는 연구진이, 사회적 능력척도는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영어교육시작연령과 영어교육기관 종류(유아대상 영어학원, 유

치원)에 따른 유아의 모국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조기영어교육은 유아의 모국어 습득에 저해되지 않으며 어휘력 점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아가 유치원의 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시작연령에 따른 사회성 발달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다.

유아기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또 다른 연구로 최지영(2008, 2009)의 연구가 있다. 최지영의 2008년 연구는 유아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좀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영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수행하였다. 조기 영어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의 신장에 있으므로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개 기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균형적 언어접근법’의 효과를 사전, 사후 조사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한 유치원의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실험반(30명)에서는 균형적 언어접근법(총체적 언어와 phonics)을, 비교반(30명)에서는 문학(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사후 검사로 유아의 영어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과 정의적 영역(흥미도, 자신감, 불안감)을 실시하였다. 결과, 균형적 언어접근법을 접한 유아들이 읽기, 쓰기 능력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적 영역에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아에게 총체적 언어접근 속에서 phonics를 접목하여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지영의 2009년도 연구는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로서, 연구기간 6개월 동안 1주일에 3회씩 영어교육을 실시한 실시집단(실험집단)과 미실시집단(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아개념 검사를 사전, 사후 실시하였다.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유치원을 선정하였으며 개인 지능검사(KEDI-WISC)를 실시하여, 이 변인들을 통제하였다. 연구 결과, 조기 영어교육의 실시 여부는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기 영어교육으로 인하여 모국어를 배워나가는 유아들의 자아정체성, 민족자긍심 등의 주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조기 영어교육의 반대론자 입장을 비판하였다. 끝으로 EFL 환경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의 찬반 논의보다는 영어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조기 영어교육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과

같은—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황혜신·황혜정(2000), 황혜신(2004, 2007)은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이중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2년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언어로 구사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서울의 어린 이집을 다니는 아동(만 4, 5, 6세) 30명(집단 1), 영어만을 사용하는 홍콩 거주 유아 24명(집단 2),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홍콩 거주 유아 27명(집단 3)을 대상으로 언어능력검사(PPVT-R)의 영어판과 한국어판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3이 영어능력과 한국어능력 모두, 집단 1, 2보다 낮으나 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었다. 특히, 영어는 6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성별은 언어발달능력에 있어서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아동들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통제가 필요한 과제에서 수행력이 높으며, 비언어적 문제해결에서도 우수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기초로(이론적 배경), 조기 영어교육은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이 균형있게 발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2007년 연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 77명 대상으로 부모설문조사, 영어와 한국어판 어휘력 검사(PPVT-R)를 실시하였다. 결과, 유아들의 영어능력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영어 노출정도, 영어권 국가 방문여부에 따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한국어 점수도 높은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영어교육이 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영어권 국가를 방문한 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서,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외국생활이 한국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 축적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II-1-1〉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① 한유미 조복희 (1999)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 정도와 상위언어 능력간의 관계	서울시 소재 유치원 재원 만 5세 유아 109명 - 집단 1: 외국어 경험 전혀 없는 유아 27명 - 집단 2: 학원을 다니지 않 은 외국어 경험 약간 있는 유아 55명 - 집단 3: 정규적으로 외국 어를 배운 유아 27명	음운지각, 단어지각, 통사지각 등 상위언 어 각 영역을 국어 특성에 맞게 척도를 제작하여 측정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	- 외국어와 모국어의 모두 능 통할 때에만 외국어 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역치가설보다는 외국어 능 력이 역시 수준이하일 때 외국어 학습이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②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 에 미치는 요인 규명	- 집단 1: 한국어만을 사 용하는 유아 30명 - 집단 2: 영어만을 사용하 는 홍콩 거주 유아 24명 - 집단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홍콩거 주 유아 27명	언어능력검사(PPVT-R) 영어판, 한국어판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유아의 한 국어능력, 영어능 력, 연령, 성별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구사 유아 의 언어능력, 경향	- 집단 3이 영어능력과 한국 어능력 모두 집단 1, 2보 다 낮으나 그 차이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 특히, 영어는 6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 - 성별차이는 없음.

(표 II-1-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③ 부경순 (2003b)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교육(3학년)에 미치는 효과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6곳 초등학생 3학년 426명	설문조사	영어교육시작시기, 교육기간, 주당 교육시간, 교육기관 영어흥미도 등	초등영어교육	- 초등3학년 이전에 약 79%가 영어교육경험이 있음. - 영어교육 시간이 많고 길수록 초등영어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④ 서현아 최미현 좌승화 친희영 (2003)	취학 전 후 영어교육 환경과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유창성과의 관계	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410명	- 이동대상 영어 유창성 검사 - 모대상 질문지	영어교육시작시기, 학교입학 후 영어 교육 정도, 취학전 노출된 영어교육 맥락(이동, 모, 영어교육환경 변인)	아동의 영어유창성	- 취학전 영어교육을 시작한 아동이 영어유창성이 높음. - 취학전 영어교육을 시작하고 입학후에도 지속적인 아동이 지속하지 않은 아동보다 유창성이 높음. - 남아보다 여아, 모의 학력, 영어교육관심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영어유창성이 높음.
⑤ 장유경 엄운주 (2003)	주당 15분 정도의 제한된 영어학습경험이 유아의 상위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 거주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만 5세 유아 17명(집단 1), 영어교육을 받은 만 5세 유아 33명 (영어수준에 따라 집단 2)	- 한국어 어휘력검사 - 영어과제 - 상위언어과제	유아기 영어학습 경험	상위언어능력	- 영어과제에서 집단 1이 수행수가 가장 낮고, 집단 2 집단 3순으로 높게 나옴. - 상위언어과제에서 집단 1이 집단 2, 3보다 낮음.

(표 II-1-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유아18명, 집단 3-유아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집단 간 한국어 어휘력 발달 차이는 없음. 따라서 제한적인 영어학습이 모국어 습득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⑥ 황해신 (2004)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대상 영어학원 재원 유아 48명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어능력검사 (PPVT-R) 영어판 한국어판 - 인어지능검사 (K-WPST) 	조기 영어교육의 유무, 영어교육 기간, 한국어능력과 영어 능력	유아의 이중언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영어교육 유무집단 간의 한국어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아의 영어점수가 어린이집 유아보다 높음. - 유아의 영어경험정도와 한국어점수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음.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어 점수가 증가함. - 영어교육 기간이 길수록 영어점수가 높음. - 어린이집 유아는 영어점수와 한국어점수간의 상관관계가 없으나, 영어학원 유아는 영

(표 II-1-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⑦ 하연희 천희영 (2005)	유아의 영어교육 시 각연령과 교육기관 (유치원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따른 모 국어와 사회성 발달	부산광역시 소재 유아데 상 영어학원 3곳의 유아 70명(만 4세, 5세)와 유치 원 2곳의 재원아 155명 (만 4세, 5세)	- 모국어 발달측정도구 (언어능력검사) - 사회성 발달측정도구 (사회적 능력 척도)	영어교육시각연령, 영어교육기관 종류	유아의 모국어 및 사회성 발달	어점수와 한국어 점수가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 영어교육시각연령에 따른 모국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 의 유의한 차이는 없음. - 영어교육기관 종류에 따른 모국어(단, 어휘력에서 영 어학원 유아)가 높게 나옴) 와 사회성 발달의 유의한 차 이는 없음.
⑧ 황혜신 (2007)	이중언어관점에서 조기영어교육이 유 아의 영어 및 한국 어 능력 발달에 미치 는 영향	서울시 강서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아 77명	- 부모대상 질문지 - 언어지능검사 (K-WPPSI) - 언어능력검사 (PPVT-R) 영어판, 한국어판	유아의 특성(성별, 연령, 영어교육경 험기간, 영어권국 가방문 정도), 가 정환경(부모 변인)	유아의 한국어 능력, 영어능력, 이중언어능력	- 유아 지능이 높을수록 영어 권방문이 짧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옴. -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영어 경험이 많을수록, 영어권국 가 방문기간이 길수록 영어 능력이 높게 나옴. - 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영 어수준, 가정에서 영어사용 이 많을수록 유아의 영어

(표 II-1-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⑨ 마송희 (2008)	유아의 영어교육경험이 상위언어능력과 모국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전광역시 C유치원 2학년 유아 46명(만 4, 5세) - 집단 1: 학원수강경험과 동화읽기경험 15명 - 집단 2: 학원수강경험 유아 7명 - 집단 3: 동화읽기 경험 유아 10명 - 집단 4: 두 경험 모두 없는 유아 14명	- 모국어 어휘력검사 - 영어 어휘력검사 (사전, 사후 검사) - 상위언어능력	유아 영어교육경험 정도 및 영어교육 유형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 영어어휘력, 모국어 어휘력	연구결과 능력이 높게 나옴 - 영어를 잘하는 유아의 한국 어 점수가 높게 나옴. - 집단 3이 상위언어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집단 4가 가장 낮음. - 집단 3이 영어어휘력에서 집단 2보다 높게 나옴. - 집단 1, 2, 3이 집단 4보다 모국어 어휘력이 높게 나옴.
⑩ 최지영 (2009)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상계동 소재 유치원 2곳의 만 5세 60명 - 6개월동안 주 3회 영어 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 30명과 미실시한 비교집단 30명	자아개념검사	조기 영어교육 유무	유아의 자아개념 (학문적, 신체적, 운동적, 사회적, 행동적, 민족적, 전체적 자아개념)	- 자아개념 각 하위요인별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즉, 조기영어교육이 민족적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2.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연구

유아기에 실시하는 영어교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밝힘으로써 영어교육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재고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남희·서유현·강영은(2002), 우남희·김현신(2004)의 연구는 유아기 영어교육과 아동기 영어교육의 효과 차이를 규명한 연구로서, 영어교육경험이 없는 만 4세 유아와 만 7세 유아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만 4세보다 만 7세가 영어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충분히 발달한 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영어교육을 시작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제안하였다. 2002년 연구에서는 동물실험(쥐)도 실시하여 뇌발달에 맞지 않은 조기교육은 유아에게 스트레스증후군, 학습기억 및 신경세포회로 장애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만 4세 10명, 만 7세 13명이며 실시한 영어교육도 주 2회씩 총 8회를 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4년 연구도 2002년도와 거의 동일한 연구설계를 해서 아동의 연령, 지능, 보존개념에 따른 영어학습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영어교육경험이 없는 만 4세 유아 10명과 만 7세 유아 13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보존개념조사, 영어학습 효과를 실시하였다. 영어학습 효과는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주 2회, 총 8회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영어교육이 끝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영어학습은 지능과는 상관이 없으며, 연령이 높고 보존개념이 발달된 만 7세가 만 4세보다 영어학습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추상적 사고의 척도가 되는 보존개념이 발달된 아동일수록 영어를 더 잘 습득한 것이므로(우남희·김현신, 2004: 9) 영어교육의 시작시기는 만 7세 이후가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남희(2006, 2007)는 유아의 창의성 또는 지능과 조기 영어교육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2006년 연구는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서울시 강북 소재의 유치원 유아 5명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아 5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창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아가 유치원 유아보다 일찍 영어를 시작하고 영어교육시간도 10배 이상 많았으나, 두 집단 간의 지능차이는 없었으며 창의성은 유치원 유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

아보다 30.2점으로 훨씬 높게 나왔다. 연구사례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30점 이상 차이는 간과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며, 한국어에 덜 노출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아가 한국어 언어창의성 검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우남희, 2006: 132) 해석하였다. 2007년도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들의 영어 조기교육 경험이 그들의 지능 및 창의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몬테소리 유치원, 공동육아 어린이집,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선정하여 총 57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을 구성한 이유는 정규 유치원 교육경험, 사교육이 배제된 교육경험, 영어가 집중된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특히 영어유치원은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영어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연구결과, 세 집단 모두 지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영어교육 경험의 유무는 유아의 지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창의성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영어교육 경험이 많은 영어유치원 유아들의 창의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모국어가 형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새로운 언어를 접하면 정상적인 사고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하루에 5시간씩 영어에 노출된 유아들의 창의성 점수가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영어유치원의 경우 하루 종일 알아듣지도 못하는 교사의 영어를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형태이고 영어 이외에 유아들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상호작용도 거의 없어 창의성을 발달시키기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모국어를 발달시켜야 할 시기 즉, 유아기에는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교육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동주(2007)는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영어 수업시간을 참여관찰하고 영어 수업 담당 원어민 교사들을 심층면담 하였다. 먼저 부모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한 반 아동 30명 중에서 21명은 취학 전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9명은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이 중 영어 경험이 있는 유아와 없는 유아가 고루 배치된 총 7명으로 구성된 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영어 경험이 있는 유아는 취학 전 집에서 영어 동화책 듣기, 구민회관 영어수업,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영어수업, 영어서점의 이야기 세

미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관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영어시간에 보이는 자신감, 흥미 및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제적인 영어능력에서는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유아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영어능력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영어적 변인이 아닌 개인적 특성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오히려 영어교육의 경험보다는 또래나 교사의 지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면담을 실시한 영어 원어민 교사는 총 5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1학년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영어 원어민 교사 면담 결과에서도 유아기 영어교육경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영어교육의 경험은 이후 초등학교 영어학습 성공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 둘째, 영어교육의 시작은 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만 6세 정도가 적절하므로 너무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영어학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취학 전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들도 인지적 능력, 흥미, 노력에 따라 영어교육 경험에 의한 능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영어능력의 격차를 따라잡는데 아동의 경우 대략 1-2년이 소요된다. 넷째, 아동의 영어교육이 성공적이기 위하여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도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영어교육은 오히려 유아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유아기에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 발달적 경험과 과업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지적 성숙과 모국어를 능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이후에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귀옥·우남희(2008a)는 유아기 영어수준이 모국어수준과 영어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 만 5세 학급 4반의 유아 113명과 그들의 부모 8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수준과 영어수준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국어수준이 높은 유아가 영어수준도 높았으며 특히, 모국어의 단어를 잘 이해할수록 영어 이해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모국어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이것이 영어단어를 인지하고 발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나아가 모국어와 영어 중 어느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 외국어교육의 순서와 시기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 경험 즉, 시작시기,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의 종류

등에 따른 유아의 영어수준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영어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아의 영어교육은 배우는 시기보다는 모국어 능력, 학습동기 및 자발성 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었다. 나아가 유아기에 모국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만 강요받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병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신의진, 2002)를 인용하여 과도한 영어교육의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귀옥·우남희(2008b)는 부모변인과 유아 영어학습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한 유치원의 매일 영어교육을 20~30분씩 받는 만 5세 유아 113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수준 검사 및 부모 대상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월수입, 어머니의 영어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영어학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2011)는 조기 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문제행동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어린이집 유아 115명을 대상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영어교육 경험으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일제에 참여한 유아가 시간제보다 한국어 어휘력이 더 낮은 수준이었고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에 참여한 유아의 공격성은 아직 걸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내재성이 강하여 문제행동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소극적이며 우울하거나 불안함을 호소함으로써 언젠가는 심각한 외현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민진(2012)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아기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와 그기간을 조사하여 현재 사회언어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을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닌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이로써 최종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1곳의 4개 학급 142명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닌 유아의 평균 학습기간은 9.09개월이었고 가장 오랫동안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닌 경우는 4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기간을 세 그룹 즉,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은 그룹,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이 있는 그룹을 22개월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인 현재의 사회언어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재원 기간이 길수록 수업 참여 방식과 관련된 언어능력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시 말해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재원 기간이 길수록 초등학교 교실에서 또래나 교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언어적 능력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유치원에 다닌 유아들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의 규칙과 낮은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이러한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즉, 일반유치원에 다닐 경우 교실에서 유아가 잘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쓰므로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갖고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모든 초점이 영어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이러한 경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아기의 적절한 발달을 고려할 때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이병민 교수는 초등영어전공자로서 조기영어교육에 관심을 갖고 언론매체나 기고문을 통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반대해 왔다. EFL 언어 환경에서는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없으며 언제 시작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양이 영어유창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이병민, 2014: 94-164). 아울러 많은 연구들이 진행할 당시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드러난 연구결과만을 인용하는 행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이병민, 2014: 103).

의학계 분야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의 병폐를 주장해 온 서유현 교수에 의하면, 전두엽은 유아기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반복적인 단순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어서 '인지적 융통성'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주입식 영어교육은 뇌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서유현, 2006, 2014).

한편, 유아기 영어교육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는 조기 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교육 경험이 있는 만 34~66개월 자녀를 둔 부모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 사교육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표 II-2-1〉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① 우남희 서유현 강영은 (2002)	- 유아와 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영어실험교육을 실시, 유아기와 아동기 영어교육의 효과 차이 규명 - 초기 영어교육이 유아 뇌발달에 적합한 지 규명	- 서울시 및 신도시 영어 학원장 15사례 및 강사 79사례 - 학원장 6명, 학부모 5명, 유아 및 아동 12명 - 서울시 성북구 소재 초등학교 1곳, 어린이집 1곳의 영어교육경험이 없는 총 23명; 만4세 10명, 초등2학년 13명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 - 사전검사(영어능력검사 지능검사, 실험교육 만 4세 만 7세 그룹 각각 총 8회 영어교육 실시) - 사후 영어검사 - 동물실험	아동 연령, 아동 스트레스	영어교육 효과, 아동 뇌발달	- 만 7세가 만 4세보다 영어 학습 효과가 뛰어난. - 만 4세 유아에게는 놀이, 게임의 교육방법도 적절치 않음. - 뇌발달에 적합한 영어교육 시작시키는 만 6세 이후~12-13세경이며 만 6세 이전의 '과도한 강제적' 외국어 교육 실시는 스트레스 증후군(과잉학습장애 증후군), 학습기억, 신경세포회로 등에 장애를 미칠 수 있음. - 뇌발달에 맞지 않은 조기교육은 유아 뇌발달에 해를 줄 수 있음.

(표 II-2-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② 우남희 김현신 (2004)	아동의 인지능력과 영어 학습 효과의 관계 규명	- 영어교육경험이 없는 서울시 강북구 어린이 집 1곳의 만 4세 10명과 초등학교 1곳의 만 7세 13명 등 총 23명	- 지능검사(K-PPST, K-WISC) - 보존개념검사 - 영어학습효과 검사 (사전, 사후검사)	아동의 연령, 지능, 보존개념 (추상적 사고력)	영어학습	- 아동의 영어학습은 지능과는 상관없음. - 아동의 영어학습은 연령과 보존개념과는 상관있음. 즉, 연령이 많고 보존개념이 발달된 만 7세가 만 4세보다 영어학습효과가 큼.
③ 우남희 (2006)	유아의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 분석	- 서울시 강북 소재의 유치원 1곳의 재원아 5명, 유아대상 영어 학원 1곳의 재원아 5명(만 5세)	- 지능검사(K-WPPSI) - 창의력검사(TTCT) - 부모대상 설문지 및 면담	유아의 영어교육	유아의 지능, 창의성	- 유아영어학원의 유아가 일반 유치원의 유아보다 약 5개월 정도 일찍 영어를 시작했고, 영어교육시간이 10배 이상 많았음. - 두 집단 간 지능 차이는 없음. - 두 집단 간 창의성 차이는 있음(일반유치원 유아가 영어학원 유아보다 30.2점 높음).

(표 II-2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④ 신동주 (2007)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 등학교 1학년 영어학 습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A초등학교(초1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영 어수업 실시) 1학년생 30명과 부모 - 영어수업 담당 원어민 교사들 - 이중 영어 경험이 있는 유아와 없는 유아가 고 루 배치된 총 7명으로 구성된 한 집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수업시간 참여 관찰(1년) - 부모대상 설문지 (취해진 영어학습 경험 유무) - 영어 수업 담당 원 어민 교사 5명 대상 심 층면담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	영어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영어경험은 영어시간에 자신감, 흥미, 태도(정의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영어능력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임. - 유아기 영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영어능력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 유아기 영어경험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아님. - 영어교육의 시작은 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만 6세 정도가 적절

(표 II-2.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⑤ 이귀옥 우남희 (2007)	유아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관계	유치원, 공동육아리얼집 유아대상 영어학원 각 1 개원씩 만 5세 유아 57명 과 그들의 어머니 57명	- 지능검사(K-WPPSI) - 창의력사교력검사(TTCI) - 부모설문지 및 심층면접	영어 조기 교육 경험	지능, 창의성	- 지능은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 창의성은 집단 간 차이가 있 음. 영어교육시간이 가장 긴 영어학원 유아들의 창의성(언어 검사)집수가 다른 집단에 비 하여 현저히 낮았음. - 영어시작시기와 지능, 창의성 관계는 연구대상의 한계로 검증 못함.
⑥ 이귀옥 우남희 (2008a)	유아 영어수준이 모국 어 수준 및 영어교육 경험 정도와의 상관 정도	서울시 8유치원 만 5세 4 학급의 유아 113명(평균연 령 만 5.06세 주5회 일일 20~30분 영어교육 받음)과 그들 부모 87명 대상	- 모국어 검사 - 영어수준검사 - 부모대상 설문지	영어수준	모국어 수준, 영 어교육 경험	- 모국어수준이 높은 유아 영어수준도 높음. -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수준 은 상관없음.
⑦ 이귀옥 우남희 (2008b)	부모변인과 유아 영 어 학습과의 관계	서울시 8유치원 만 5세 4 학급의 유아 113명(평균연 령 만 5.61세 주5회 일일 20~30분 영어교육 받음)과 그들 부모 87명 대상	- 부모용 설문지 - 유아 영어학습준 검 사도구(음운지각, 단어 지각 통사지각, 받음 검사)	부모의 교육수 준, 직업, 월수 입, 영어수준	유아(자녀)의 영어학습 수준	-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수입, 모의 영어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영어학습수준이 높게 나옴.

(표 II-2-1 계속)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조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p>⑧ 김형재 (2011)</p>	<p>조기 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모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문제행동 등 규명</p>	<p>부산·경남 소재 유아대상 영어학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의 5세, 7세 유아 115명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검사(K-WPSSI, K-WPSSI-III) - 한국어 어휘력검사 - 스트레스검사(KPDSS) - 문제행동검사(K-CBCL) 	<p>전일제와 시간제 영어교육 경험</p>	<p>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에 참여한 유아의 시간제보다 한국어 어휘력이 더 낮고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이 더 높음.
<p>⑨ 김민진 (2012)</p>	<p>취학전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초등1학년)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조사</p>	<p>서울시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1곳의 1학년 4개 학급 142명 - 취학전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이 없는 그룹, 21개월 경험 그룹, 22개월 이상 경험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대상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 환경 설문지 - 사회언어학적 능력 검사(수업참여방식, 말투, 말차레, 공손함, 화제) 	<p>조기 영어교육 경험 정도</p>	<p>초등학교 1학년 사회언어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대상 영어학원 재원 기간이 길수록 학교 수업 참여 방식과 관련된 언어능력 점수가 낮음. - 22개월 이상 영어학원 경험 그룹이 말차레, 화제 영역에서 나머지 그룹에 비해 점수가 낮음.

다. 소결

지금까지 주로 2000년대에 수행한 유아기 영어교육 연구들 중에서 연구결과가 유아기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온 논문 10편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문 9편을 분석, 고찰하였다. 찬성론 입장의 연구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상 속에서 영어입력의 양이 제한된 EFL 환경에서도 유아기의 영어교육은 유아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한국어 습득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국어 습득의 초기단계에서 배우는 영어는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역치가설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신역치가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나오므로써, 조기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한 유아기 영어교육경험이 현재뿐 아니라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모국어, 영어 또는 이중언어 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도한 영어교육을 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모국어나 사회성발달의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후에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가 높게 나오기도 했다.

조기 영어교육의 찬성론 입장에서도 과도하거나 주입식의 영어교육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유아의 영어학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을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말과 외국어의 차이를 감지하는 영어학습 정도를 제한하거나(한유미·조복희, 1999), 학원 등의 사교육보다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동화읽어주기 영어학습이 더 효과적이므로(마송희, 2008) 이를 권장하였다. 교수방법도 주입식이 아니라, phonic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리 중심의 영어교수방법이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최지영, 2009). 이는 주입식, 암기식이 아닌 유아들이 영어를 보다 즐겁게 학습해 나가도록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그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 접근해 나가자는 반대론 입장과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들 연구들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아기 영어교육경험과 영어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규명되었다(서현아 외, 2003; 황혜신, 2007).

유아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연구의 연구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굳이 일찍’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유아기 때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영어습득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아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해 유아발달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는 등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연구(우남희 외, 2002; 김형재, 2011)보다는 연령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

아로 구분하여 이들 대상으로 검사도구를 실시,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우남희 외(2002) 연구에서 실시한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연구도 인간이 아닌 동물(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다.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유아 뇌발달이나 정서적 위축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잉의 강제적 영어조기교육’이 의미하는 영어교육의 정도(강도)나 내용,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과도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의 창의력(우남희, 2006, 2007)이나 모국어(이귀옥·우남희, 2008a; 김민진, 2012) 점수는 낮게 나왔으나, 이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한 실험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수행한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의 연구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교육이 ‘발달 측면’에서라기보다는 ‘효과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EFL 환경에서 ESL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한 집단은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 고학력의 부모의 유아들이다. 이는 앞서 유아기 영어교육을 찬성한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발생하는 유아기 영어격차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찬반 양 진영 연구의 공통점이란 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3. 유치원 영어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유치원 영어교육에 대한 정부방침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후의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의 심화·확장, 휴식, 바깥놀이 등 돌봄 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

다음 <표 II-3-1>은 2005년의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 시행계

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치원에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금지하였다.

〈표 11-3-1〉 유치원의 특별활동 금지 지침

유아교육 시행계획(2005)	
○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중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내용(2005년)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성교육 및 창의성 개발 등 전인교육 정착 • 국가고시 유치원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지침 준수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 교육부 개발·보급 유아교육자료 적극 활용 •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감독 철저 :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 • 종일반 프로그램: 유아발달에 적합한(언어, 수·과학, 미술, 음악 등) 내용을 통합적으로 교수·학습방법으로 운영

자료: 이윤진·장명림·김문정·김혜원(2010). 유아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대책. p. 9.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해서 방과후 과정 시간에 교육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추천제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실시하였다. 대신, 교육과정 시간 내에서는 교육과정 외의 일체의 특성화 활동은 금지하였다. 요컨대, 누리과정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나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았으며 운영 시간대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오전 시간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도입을 기점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허용하되,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의 방과후 과정 시간에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수정하였다.

방과후 과정 시간에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유치원이(68.0%) 오후에 실시함으로써(서문희 외, 2012: 183)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영어

2)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문화예술, 과학창의, 언어(영어 포함)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 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방과후 과정에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만약 이를 금지하게 되면 영어학원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표 II-3-2〉 유치원 영어프로그램 운영 금지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비 인하로 학부모 부담 경감 - 유아의 발달시기에 맞는 방과후 과정 운영 프로그램 실시 및 돌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금지에 따른 또 다른 유치원 밖의 고액 영어 사교육 유발 가능 -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 미반영으로 방과후 과정 희망 유아 감소 가능 - 유치원 및 영어교육 관련 업체의 수입 감소에 따른 반발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a).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표 II-3-3〉 유치원 영어프로그램 현행 유지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 관련 학부모 부담 일부 완화 -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 반영 가능 -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 학부모 부담 상존 - 국가가 유아에게 영어를 허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a).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나.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최근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총 33,919개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예술 영역 프로그램이 40.6%로 가장 많고 언어(영어 포함)가 21.8%로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과학창의 프로그램을 가장 적게 운영하고 있다(표 II-3-4 참조).³⁾

3) 유관 조사에서도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학부모의 요구가 가장 많고 실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5세 누리과정 이용실태' 조사에서 만 5세 재원아 기준으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은 47.5%로 미술 41.4%, 음악 34.4% 보다도 많이 이용하였으며 비용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2: 98-99). 2012년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프로그램 중 영어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1순위이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며(70.5%), 비용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혜미·손창균·이혜민, 2012: 185).

<표 II-3-4>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육	과학창의	언어	합계
프로그램 운영수	13,788	6,834	5,895	7,402	33,919
비율(%)	40.6	20.1	17.4	21.8	100

주: '13. 8월 정보공시, 만 5세 기준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a).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영역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9.0%로 언어영역 프로그램은 영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영어외 프로그램은 한글 관련 프로그램이나 영어외 외국어, 예컨대 중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3-5> 언어영역 운영 현황(영어 및 영어외)

프로그램	영어	영어외	합계
프로그램 운영수	4,369	3,033	7,402
비율(%)	59.0	41.0	100

주: '13. 8월 정보공시, 만 5세 기준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a).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다음 <표 II-3-6>을 보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언어영역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영어외보다 더 많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례도 증가해서, 유아연령과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은 비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학 직전의 만 5세아는 특성화 프로그램 중 영어의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용면에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 비싸며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의 영어 프로그램 비용이 약 2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6〉 특성화 프로그램 영어관련 정보공시 통계자료

구분		국공립							
		유치원수			프로그램 운영수		언어영역 중 영어		타프로그램 금액(원)
		영어	영어외	전체	영어	영어외	운영시간	금액(원)	
연령	만 3세 (3,446)	845 (24.5%)	642	1,286	920	738	35	14,138	11,778
	만 4세 (4,141)	1,324 (31.9%)	861	1,906	1,535	1,027	36	14,431	11,886
	만 5세이상 (4,492)	1,541 (34.3%)	958	2,177	1,806	1,155	36	14,927	11,972
구분		사립							
		유치원수			프로그램 운영수		언어영역 중 영어		타프로그램 금액(원)
		영어	영어외	전체	영어	영어외	운영시간	금액(원)	
연령	만 3세 (3,835)	1,136 (29.6%)	753	1,464	2,181	1,481	35	26,937	15,484
	만 4세 (3,959)	1,280 (32.3%)	861	1,621	2,582	1,799	36	30,005	16,653
	만 5세이상 (3,961)	1,267 (31.9%)	866	1,617	2,563	1,878	36	30,343	16,745

주: '13. 8월 정보공시기준이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1회당 분단위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b).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현황.

Ⅲ. 외국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현황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EFL이란 동일한 언어 환경인 일본, 중국, 대만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들 세 나라들도 영어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서 어린 자녀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려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대만에서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 금지 정책은 유아기 영어교육의 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반증이라 하겠다. 이들 세 나라들의 최근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1. 일본

가. 일본 영어교육 정책 분석

1992년 문부성은 공립 소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소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우리의 초등교육과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종합 학습 시간' 중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영어활동을 실시하게 되고 이후 일본 전국의 대부분 소학교에서 영어활동이 사실상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종합 학습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능력 발달보다는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었다. 2002년 약 50%의 소학교에서 종합 학습 시간에 영어활동을 시작하였고 2004년 90%, 2006년에는 95.8%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문부과학성의 조사(2004)에 의하면 71%의 부모가 영어가 필수과목이 되기를 희망한 반면, 교사의 37%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개정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주 1시간 정도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가 아닌 외국어활동으로서 영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전국의 소학교에 영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때 외국어활동의 주요 목적은 1) 외국어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 갖기 2) 외국어활동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였

다. 이후에도 영어를 어떻게 교과화해 나갈지, 중저학년에게도 영어를 도입할지 등 소학교 영어교육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었다(溝上由紀, 2012; 泉惠美子, 2007; Kitano, 2008).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12년부터 전국 소학교 5, 6학년 학생에게 연간 35단위의 영어수업을 필수화시켰다.

이러한 소학교 영어필수화는 일본 전체에 지식으로서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영어(使える英語)’ 습득에 대한 움직임을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더 이른 시기인 ‘유아기부터 영어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게 되었다. 언어학 전문가들은 유아가 영어를 배울 경우 청각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인에게 L과 R의 발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생후 6개월에는 일본인도 미국인과 같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점점 모국어로 특화된 귀가 되어가면서 외국어의 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영어에 익숙해질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를 학습이라기보다도 놀이 중에 배우면서 영어의 에센스를 넣어 주는 이미지로 접근한다면 굳이 영어학습 환경을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점점 영어를 흡수해 나간다는 것이다(마이ナビ뉴스, 2013년 4월 19일, 리포트 “2세아에게서 네이티브 같은 발음-유아영어교육의 중요성”). 이러한 소학교 영어필수화 정책은 유아 대상의 조기영어교육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Kitano(2008)는 일본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사립유치원 7,710개원 중 406곳에서 이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도쿄 5.18%, 사이타마 6.65%, 후쿠오카 5.24%, 가나가와 4.50%의 비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2002년에 18개뿐이었던 사립 영어유치원(English private preschool)도 2007년 264개로 엄청난 양적 확대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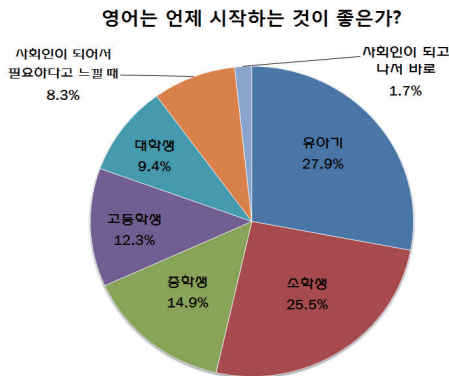
소학교에서 영어를 도입하기 전 영어 관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이분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부모와 사회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北村豊太郎, 1997)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소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가 76%로 나타났고 사회인은 ‘중학교이전부터 배워야 한다’가 77% 이상이었다. 실제로 취학전 유아 10명 중 1명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는 24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는 보고(鶴蒔靖夫, 2010)가 있으며 2012년 소학교 영어필수화 전부터 민간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은 상당히 정착해 있다는 지적(溝上由紀, 2012)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대중 여론은 소학교 영어교육 도입 및 조기영어교육을 강하

게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소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유아 단계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아이의 영어너 만들기예 열을 올리는 부모가 많다는 신문기사(아사히dot, 2013년 3월 22일, “유아기의 영어학습: 영어교육은 몇 세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13년 1월에 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goo리서치) 결과를 보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은 80% 이상, ‘가르치고 싶지 않다’ 4.5%, ‘잘 모르겠다’ 11.2%이다. ‘소학교의 영어 필수화 찬성’은 71.6%, 반대가 28.4%이었다. 찬성의 이유는 듣기에 익숙해지므로, 빨리 시작해도 해가 되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에서도 도입하였고 교육의 효과도 제대로 내고 있으므로 라고 답하였다. 반면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영어교육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서, 먼저 모국어를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를 들고 있었다.

영어를 배우는 적절한 시기로는 ‘유아기’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소학생’ ‘중학생’ 순으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아사히dot, 2013년 3월 22일, “유아기의 영어학습: 영어교육은 몇 세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일본인이 영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도 ‘조기교육, 유아교육’이나 ‘소·중학교의 수업의 충실’을 든 사람이 많았다(일본 President 온라인판, 2014년 7월 21일, “영어 가능한 1000명에게 물었다 어린이에게 마스터시키는 방법”/프레지던트 패밀리, 2013년 4월호).



자료: <http://president.jp/articles/-/13025>를 토대로 재구성함.

[그림 III-1-1] 영어를 배우는 시기 조사 결과(일본)

최근 일본은 영어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은 더 이상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다. 심지어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영어교재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영어교육이 확대되어 가는 것인지 그 배경을 취재한 기사(NHK 뉴스, 2013년 10월 11일, “과열하는 유아영어교육의 배경은”)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로 부모들은 소학교 영어 필수화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영어교실의 저연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난 곳이 사립유치원이라고 한다. 일본 베네세 교육종합연구소의 조사(2012)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비율이 2007년 47.6%였다면 2012년에는 58%까지 상승하여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한다. 최근 3년 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한 도쿄 기요세시의 한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소자화(少子化)로 인한 정원 미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유아기 영어교육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2012년 정원 미달인 사립유치원은 약 80%를 넘어서고 있다. 어찌되었든 원아를 모집해야 하는 유치원이 도입한 것이 영어교육이었고 그 결과 원아수가 5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외국어교육의 결정적 시기라는 발달적 특성 이외에도 유아기 영어교육을 과열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동 기사에서는 유아교육전문가인 시라우메대학의 無藤降교수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앞으로의 조기영어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아이가 영어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어만 하게 하지 말고 놀이도 하고 블록도 쌓으며 그림책도 읽는 등 영어도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서 생각하기 바란다.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일이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영어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조기 영어교육이 모국어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소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椎名玲, 吉中由紀, 2008).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기부터 영어를 배운 아이가 말을 할 때 “엄마씨, 좋아해, 피치”와 같이 모국어보다는 영어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문법에도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어의 문법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서 모국어의 문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버리며 자신의 이름조차 모국어로 쓸 수 없게 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기영어교육의 폐해를 경고하였다. 특히, 오사

카의 명문 사립 소학교의 한 교사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국제학교 출신 아동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어로 하는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 중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껌이나 과자를 먹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성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게이오대 소아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모국어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앞으로 아이가 다른 언어를 익히는 일이 어렵게 되므로 아이가 불안감 없이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인이라면 일본어로 사물을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모국어가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주입시키면 언어에 국적이 없는 일본인을 만드는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2009년 전국 도도부현 교육장협의회 조사에서는 단독으로 영어를 지도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교사의 영어력 강화 등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초석을 다져야 하는 유아기에 굳이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개성을 무시한 일제수업(一齊授業)의 형태를 취하는 영어교육이 개별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비판(アレン玉井光江, 上野めぐみ, 2000)도 제기된 바 있다.

나.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글로벌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재의 육성 등 세계화에 눈을 돌리는 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이나 보육소에서는 소학교에서의 영어 필수화 이전부터 이미 영어를 교재나 교육내용으로 도입하여 유아들에게 친숙해지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市川力(2004)는 부모가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1) 유아기는 모국어와 동시에 제 2언어를 습득하는 적합한 시기이므로 2) 유아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네이티브처럼 되지 않으므로 3) 영어는 글로벌한 세계에서 필수 기능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秀眞一郎, 木本有香, 中島信吾, 烏田直哉, 小野克志, 志濃原亞美, 横井一之와 田中卓也(2013)는 우리나라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특필활동(특별활동)이 일본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아기 영어교육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배경으로 2012년도부터 소학교의 영어교육 필수화를 들었다. 이러

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전국에 소재한 사립유치원과 보육소 14개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영어 실시 대상연령, 횟수, 시간, 강사의 출신지 및 사용언어, 영어활동의 시작시기 및 계기, 영어활동 내용, 소학교 영어필수화에 대한 생각, 영어활동 시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어 실시대상 연령이 5세아인 경우 14개원, 4세아 12개원, 3세아부터 시작하는 곳도 9개원이나 되었다. 횟수는 월 2회 또는 주 1회가 5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 5회 하는 곳은 1개원뿐이었으며 시간은 30분이 6개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어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10년 전부터인 경우 4개원, 12년 전부터도 2개원이나 되었고 30년 이상 되었다고 말한 곳도 1개원이 있었고 2개원은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영어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원장의 개인적 경험과 필요성이 4개원, 국제화의 대응이나 다문화에의 친숙함을 위하여가 3개원, 원의 특별 프로그램으로서가 3개원, 부모의 요구가 2개원으로 나타났다. 영어활동내용의 결정 방법은 업자, 강사에게 완전히 맡긴다가 9개원, 업자와 강사에게 맡기거나 원 측과 상의해서가 3개원이었으며 영어활동 시 보육자의 역할은 14개원 모두 함께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 지원이라고 답하였다.

영어활동시간 외에 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활동은 행사에 의한 발표 3개원, 일상생활의 일부 3개원, 요구자에 의한 영어 과외활동 실시 2개원, 담당교사에 의한 활동내용의 자연스러운 반복 형태 2개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3개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찬성이 13개원, 반대가 1개원이었다. 또한 원 측에서의 불안, 의문, 곤란한 일로서는 담당교사의 영어능력이나 영어에 대한 압력, 영어강사 육성, 영어활동의 장래성이나 방향성, 교육적 효과 등으로 답하였고, 소학교 영어필수화에 대해서는 영어의 필연성에 대한 의문, 좋은 경험, 알 수 없는 불안감, 폭 넓은 인간성 배양, 문부과학성의 늦장 대응에 불만족을 들고 있었다. 바람직한 영어활동의 내용은 그림카드나 플래시 카드, 시각적 교재, 게임 활용, 날씨와 요일, 인사, 수, 색, 교통기관, 음식 등을 내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황과 함께 현재 일본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영어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3, 4, 5세아 모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이 중에는 2세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등 유아기부터 영어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吉岡由佳(2014)는 대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영어조기교육 시기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소학교 5, 6학년 이전에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답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소학교 3, 4학년으로 전체의 25%(50명)이었고 그 뒤를 1, 2학년과 유치원이 각각 20%(38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인 대학교 2년생 60명 중 16명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학교에서의 외국어활동 정식 도입 전부터 이미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하여 吉岡由佳(2014)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2008년 문부과학성에 의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때문이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의하여 소학교 5학년 및 6학년에 '외국어활동'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8년 이전부터 이미 영어활동이 소학교 교육에 침투되어 있었다. 이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종합 학습 시간'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서 영어 학습 시간을 가진 일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부과학성의 '소학교 영어활동 실시현황 조사'에서도 정식 도입 5년 전부터 이미 전국의 소학교 88%가 어떠한 형태로든 영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 후 조사에서 영어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2007년에는 약 97%에 달하고 있었다(문부과학성 외국어학습지도요령 3). 이는 영어교육 수요에 맞춘 '외국어활동'이 현장에서 필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소학교에 제한되지 않고 영어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높다. 문부과학성이 2008년 발표한 '유학생 30만 명 계획'은 일본의 대학 등에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나,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간 교류의 활성화나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일본인의 육성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부단계의 일정기간 해외유학을 의무화 하는 대학도 일부 생겨났다고 한다.

같은 연구에서 吉岡由佳(2014)는 유아영어교육에 TPR(Total Physical Response)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TPR이란 전신으로 반응하면서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교수학습 방법이며 이 연구에서는 만 3세아를 대상으로 인사, 날씨, 수, 색, 신체, 동물을 주제로 영어 TPR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몸을 움직여 활동함으로써 언어요소가 인상에 남고 그 후의 활동(노래 부르기)에서 언어 표현양과 정확성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을

위한 1대1 대화형 TPR 활동은 유아 응답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즐기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의 학습단계에 맞춘 세심한 지도가 가능하게 된 것도 유아의 언어교육에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중심이 된 영어교육이라면 만 3세아에게 적용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로써 유아영어교육의 방법과 방향성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또한 일본아동영어교육학회 부회장인 류큐대학의 大城賢 교수는 영어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이른 시기에 시작해도 무방하며 실제로 소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아이가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아사히dot, 2013년 3월 22일, “유아기의 영어학습: 영어교육은 몇 세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과 시작시기에 대하여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溝上由紀(2012)는 조기영어교육의 4가지 패턴을 제시하면서 조기영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국제화 사회에서 영어는 필수적이며 미래의 일본인은 영어를 하지 못하면 글로벌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가? 영어가 생활필수품이 된 것은 사실이나 아이들에게 영어를 반드시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영어 우월주의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둘째, 어린 시기는 언어의 습득에 적합한 시기(적기교육)이므로 어릴 때부터 영어에 익숙해지면 고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습득이 가능한가? 어린 시기가 언어습득에 적합한지 어떤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며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학습해도 고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네이티브 스피커(非ネイティブスピーカー)가 영어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 2,000시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므로 고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한다는 속설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시기에 접하는 유아영어는 고도 레벨의 성인영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필요성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임계기가설) 네이티브 스피커(ネイティブスピーカー) 같은 진짜 영어를 습득하지 못하는가? 발음면을 제외하고는 제 2언어습득

의 입계기가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으며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발음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영어는 어디까지나 외국어이며 영어교실이나 학교를 나르면 아이들은 다시 일본어 환경을 접하게 된다. 즉, 현재의 주류인 주1회 정도의 학습 형태로는 네이티브 스피커와 같은 영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찍 영어를 시작하든 그렇지 않든 큰 차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조기영어교육의 추진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영어교육은 국제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과 같은 맥락이며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나 관용성을 기르는 것인가? 영어와 국제이해, 다문화이해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문화이해나 다른 사람에의 관용성의 배양은 소학교 영어교육을 통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가 가능하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생각은 영어의 우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미로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溝上由紀(2012)는 영어학습을 모국어가 확립된 중학교 단계에서 시작하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으나 소학교 5학년부턴 영어활동이 이미 도입된 현 상황에서 영어교육 시작 연령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대만 등의 인근 국가에서는 영어를 소학교 3학년부턴 도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영어교육의 저연령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어학습은 장기간을 목표로 해야 하며 강한 동기화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중적인 학습을 지속해야 성과가 있지 그저 빨리 학습을 시작해도 습득 도중에 학습을 그만두면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영어를 졸업과 동시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닌 학교교육을 끝낸 후에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和田陽子(2009)는 대학 1-2학년의 예비유아교사, 3-5세 유아들의 부모, 현직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각자가 가진 생각을 비교하였다. 조사내용은 1) 영유아기부터 영어교육은 필요한가? 2) 영어교육을 받은 경우, 그 효과는 있었는가? 등과 같다. 그 결과, 이들 모두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이들 간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학생 중 72%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나 부모 중 85%는 효과가 있었다는 상반된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주 1회 정도의 조기영어교육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기 어려우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보육소에서 하는 조기영어교육은 다른 언어, 다문화에 친숙해지는 기회

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를 위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넓힌다는데 의미를 뒀으로써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였다.

2. 중국

중국에서는 능통한 영어구사는 개인적 자산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의 영어교육정책은 경제, 사회적 개혁정책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혁명시기 영어는 '적의 언어'로서 학교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1980년대 초반 우수한 몇몇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계획하였다. 이후,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이에 따른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강화되었다. 2001년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Guangwei Hu, 2005).

중국의 많은 부모들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소황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들보다 먼저,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하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2012년에 유아원⁴⁾에서의 영어교육을 금지한 강소성의 성도 남경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중국에서의 유아기 영어교육 열풍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유아원 중반(만 4세반)에 다니고 있지만 26개의 영어 자모음을 이미 제대로 익혀놓았어요. 이미 기본적인 인사표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니 일 학년에 올라가도 영어는 분명 뛰어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잡아놓아야 나중에 고생안하거든요”(扬子晚报, 2013년 9월 6일, '6세 이하 학생의 영어수입금지'라는 대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부모들의 혼란)

동시에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토로하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인용글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자녀를 3살 때부터 영어학원에 보냈지만 오히려 발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이다.

“영어반은 한 코스가 3500위엔이에요. 아이가 올해 5살인데 수만위엔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아이가 평소에 중얼중얼

4) 중국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원이라 칭함.

몇 마디씩 문장으로 말할 줄 알고 영어노래도 꽤 잘 부르고, 평소에 영어를 곧잘 하길래 우리 애가 아주 잘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영국에서 돌아온 친구랑 식사를 하게 되면서 아들이 몇 마디 영어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아들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어를 말할 때도 발음이 불분명하다면서요. 영어전문가에게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 우리 애 발음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6세 이전 아이들의 발음이 중요한데 만약에 억지로 조기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교정하고 싶어도 힘들다구요”(扬子晚报, 2013년 9월 6일, ‘6세 이하 학생의 영어수입금지라는 대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부모들의 혼란’)

이처럼 중국에서도 유아기 영어교육의 찬반이 갈리고 있다. 대국(大國)인 중국은 지역마다 유아기 영어교육정책이 달라서 하나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마련한 유아원 교육과정에 명시한 언어관련 내용을 고찰하고, 유아원에서의 상반된 영어교육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 유아원 교육과정⁵⁾

중국은 독립된 법률로서의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이운진·서문희·최윤경·박금해·백미화, 2012: 82~87). 현재 유아원을 규정하는 법규는 「유아원 관리 조례」와 「유아원 업무규정」이 있는데, 다음은 총9장의 6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아원 업무규정」의 제 5장 제 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원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 (一) 지, 덕, 체, 미적 방면의 교육이 서로 융합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 (二) 유아의 심신발달규칙에 따르고, 유아의 연령별 특징에 부합되도록 하며, 개인차를 중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며, 유아의 개성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끈다.
- (三) 모든 유아들을 향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격려를 지속하고 정면교육을 계발 유도한다.
- (四) 각 분야의 교육내용을 합리적으로 종합하고 조직하여 유아의 일일 생활 속 각종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교육수단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五) 교육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유아에게 활동 및 표현능력의 기회와 조건을 제공해 준다.
- (六) 놀이를 기본활동으로 삼아 각각의 활동들이 교육을 내포하도록 한다.

5) 해당 내용은 중국 해당 사이트에서 추출하여 번역한 내용임(자료출처: <http://www.law-lib.com/fzdt/newshtml/20/20130322130007.htm>, 자료검색일: 2014년 8월 11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고 놀이를 기본활동으로 상호작용을 증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제32조에 유아원의 교수용어를 명시하고 있는데 표준어를 사용하되, 소수민족 유아들이 주로 다니는 유아원에서는 표준어와 소수민족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밖의 외국어의 사용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32조 유아원은 표준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소수민족 유아를 주로 모집한 유아원은 표준어와 해당 지역 소수민족언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제33조에는 유치원 연계를 강조하면서도 유아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역시, 명시하고 있다.

제33조 유아원과 초등학교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두 단계의 교육에서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유아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미리 초등학교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유아의 심신발달 규율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턴 주당 2~3시간씩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북경시 중학교 입학시험에 영어가 포함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인 필수교과가 되었다(김홍일, 2008: 22). 2001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턴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영어가 상급학교 진학에 입시과목이 되면서 법적으로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아원에서 영어교육이 성행하게 되었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유아원에서의 국제반 운영이라 하겠다.

나. 유아원 내 국제반 운영: 상해시, 장춘시

중국은 「유아원 업무규정」에 유아원 교육과정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건강, 언어 사회, 예술, 과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지방, 성마다 또는 개별 유아원 마다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일부 지역(상해시, 장춘시)의 유아원에서는 영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이윤진 외, 2012: 77).

동일한 유아원 내에 일반반과 국제반을 동시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일반반은 우리의 일반 유치원에 국제반은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제반에는 원어민 교사와 담임교사를 배치하여 영어만 또는 영어와 중

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중언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반의 수업료는 일반반의 2배 이상으로 고액이다. 예를 들어, 장춘시의 공군항공대학부속유아원의 경우 일반반은 월 수업료는 680위엔인데 국제반은 1680위엔이며 상해시의 건교유치원도 일반반은 2300위안, 국제반은 5000위안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윤진 외, 2012: 78).

다. 유아원 내 영어교육 금지정책: 강소성⁶⁾

2012년 공포된 「강소성 미취학교육조례」 제12조를 보면, “유아원 조직활동은 생동감 있고 흥미로우며 다양성에 중점을 둔 놀이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미취학 아동의 심신건강에 손상을 입히는 활동은 금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한어병음 및 한자를 읽고 쓰는 훈련, 숫자연산훈련, 외국어를 병음에 따라 쓰기 훈련을 하는 데 집중하는 교수방식을 금한다고 한다.

이에 남경시 유아원에서는 「강소성 미취학교육조례」의 요구에 따라 유아원에서 외국어를 읽고 쓰는 훈련과 관련된 과정은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남경의 한 유아원 원장은 본 조례규정은 6세 미만 아이들의 영어공부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다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취학 전 시기는 확실히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기에 완전한 언어습득 학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현재 학부모들은 영어학습량에 연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는 언어습득이 빠른 시기로서 유아에게 적절한 언어 환경을 제공하면 완전한 언어습득도 가능하지만, 지금의 부모들은 배우는 학습량에만 급급하여 좀 더 일찍이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 강소성의 이와 같은 유아원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정책은 대만보다 앞서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유아원 영어금지정책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신문보도(中國教育新聞網 2014년 8월 7일, “본보기로 삼을만한 대만 유치원의 영어교육 금지”), 대만의 교육부가 심천으로 옮겨졌더라면 아마도 더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는 신문보도(學習周刊, 2013년 9월 3일, “6세 이하

6) 해당 내용은 2013년 9월 6일자 대만의 揚子晚報(양자만보)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임(자료출처: http://edu.china.com.cn/xueqian/2013-09/06/content_29944020.htm, 자료검색일: 2014년 8월 11일).

유아의 영어보습금지가 심천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보면, 중국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유아기 영어교육의 열풍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아원에서의 영어교육을 찬성한다거나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다(이윤진 외, 2012: 78).

3. 대만

가.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현황

최근 대만은 학원에서 영어반의 만 6세 미만 유아를 모집할 수 없고, 이들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과 예술특기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인 ‘학원 및 연수 교육법 수정초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영어, 주산, 암산, 작문 등 암기나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만 6세 미만 유아들의 심신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學習周刊, 2013년 9월 6일, “6세 이하 유아의 영어보습금지가 심천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대만 교육부는 1993년 [취학 전 유아영어교육정책지침(學齡前幼兒英語教育政策說帖)]을 발표하여, 취학 전 유아의 심신발달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법에 의거하고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유아영어교육정책의 초안을 세웠다. 취학 전 유아의 언어학습 순서는 첫째로 모국어, 둘째로 중국어, 그 이후 영어교육 순이고, 문화학습과 국제이해를 목표로 영어를 접해야 하며, 유치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여 영어교육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정상화 선도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금지를 명하며, 유치원 교육과정표준을 개정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유아 영어교육정책의 방침을 조정한다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의 취학 전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드러냈다.

마침내 2005년부터 대만은 유치원생 대상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건강, 언어, 경험, 놀이, 만들기, 음악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그 중 언어영역은 오직 중국어 계열만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교육신문(中國教育新聞網) 2014년 8월 7일자 기사를 보면 이러한 대만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모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면 언어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며 6세 이후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中國教

育新聞網, 2014년 8월 7일, “본보기로 삼을만한 대만 유치원의 영어교육 금지”).

반면에 양자만보(揚子晚報) 2013년 9월 6일자 기사를 보면 한 전문가는 영어교육이 6세 이전 유아들의 지능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들은 선천적으로 어학에 소질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기영어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6세 이전의 유아들은 우뇌의 발음기관을 통제하는 능력이 강하고 성대와 혀 같은 운동신경 능력이 좋아서 음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시기에 습득하는 발음에 대한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揚子晚報, 2013년 9월 6일, “6세 이하 학생의 영어수업금지라는 대만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부모들의 혼란”).

한편, 대만 교육부는 취학 전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놀이방식의 영어수업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정규수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극이나 노래, 게임 등 음악과 율동이 융합된 수업방식을 활용하거나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래를 듣고 이야기 들려주기 등의 놀이수업을 통하여 유아들이 영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하였다(취학 전 유아영어교육정책지침, 1993).

나. 선행연구 분석

Ming Fang Hesieh(2011)는 영어학습의 결과를 중점으로 조기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과 달리 영어학습에 대한 유아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부모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유치원에서 대만의 가장 일반적인 영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30분씩 두 번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3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 중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유아들은 영어수업이 재미있다고 대답하며 게임하기,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에서 이루어졌던 활동들에 대하여 기억하고는 있었으나 배운 영어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영어교사와 관련 관리자는 영어학습의 반복과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의 영어교육은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부모들은 가정에서 영어를 지도하기에는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가 영어학습에 더 많은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유아들은 영어학습을 흥미로운 경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아기 조기영어교육 시작연령에 대한 논쟁은 주요 논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유아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는 유아의 나이에 적합한 영어교육 방법과 영어교사, 부모, 관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張顯達(2005)는 대만에서 영어는 외국어이지 모국어가 아니므로 아이를 영어만 사용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반드시 다음의 몇 가지 상황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모국어와 혼동하거나 모국어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둘째, 학습효과가 한정적이며, 셋째, 인격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넷째, 공부를 피동적으로 하게 되어 공부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것이다(孫良誠, 2006: 재인용). 張武昌(2003)도 영어조기교육이 가진 보이지 않는 피해는 교사인력 및 모국어 학습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우수한 교사인력만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도를 해 줄 수 있으며 알맞지 않는 교수법은 유아로 하여금 조기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 더불어 모국어 학습과 아이들의 지식발달 및 표현능력, 훗날 작문과 독해능력 기초와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영어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유아발달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망치는 것이다(孫良誠, 2006: 재인용). 孫良誠(2006)은 취학 전 유아의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정책, 외국의 외국어교육 시간 및 학습환경 등을 검토하며,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그는 영어교육은 우선 유아의 관점에서 심신발달을 고려하고 정책에 부합하며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활동내용이 설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아기 영어교육에 있어서 외국인 교사 인종과 부족한 교사인력, 모국어 학습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세 이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역시 취학 전 언어영역 교육과정의 목표는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말과 표준어를 이해하는데 있는 것이지 외국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취학 전 유아의 영어교육 실시 여부는 장래 영어 성적과 명확한 관계가 없으며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조기 영어교육을 서두르는 것 보다는 유아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학습태도를 배양하고 흥미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孫良誠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반대론을 제기했지만, 글로벌 시대에 유아원에서 영어교육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유아가 흥미를 갖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완전한 언어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언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규정을 정하는 등 취학 전 외국어교육정책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4. 소결

지금까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영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유사한 일본, 중국, 대만의 유아기 영어교육 실태와 정책 현황 그리고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일본은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오랜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12년부터 소학교 5, 6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를 본다면, 일본이 5, 6학년으로 가장 늦고,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은 초등학교 3학년부트로 정해져 있다. 즉, 이들 나라들 중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가 편성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아 영어교육 내지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이들 나라들의 학부모의 요구는 대동소이해서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의 일부 지역(상해시, 장춘시)에서는 동일 유아원 내에서 일반반과 국제반을 동시에 개설하여, 국제반에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전용 또는 영어와 중국의 이중언어를 교수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강소성과 대만의 유치원에서 영어교육금지정책은 유아 영어교육의 극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유아원의 영어교육 실시현황이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4-1 참조).



[그림 III-4-1] 각 나라의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 강도 정도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유아원의 영어교육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유아원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는 「유치원 업무규정」에 유아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어 또는 표준어와 소수민족언어 병행이라고만 되어 있다. 유치원의 영어교육 정책의 강도 측면에서 최근 들어 대만과 중국 강소성에서 금지라는 강경책을 실시하고 있다면, 일본과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어떠한 정부 지침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방임책(자율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과정(누리과정)에서는 금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허용이라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아원 내의 국제반을 개설, 운영하는 중국의 상해시나 장춘시는 제도권 유아교육기관 안에서 영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들 네 나라 모두 학부모들의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시 정도는 대동소이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언어습득은 반드시 중요한 시기에 배워야 하며 영어공부는 새로운 학습자극을 줄 수 있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국어학습은 모국어와 표준어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학습동기를 배양하는 것은 능력 여하에 따른 것이기에 취학 전 유아의 영어교육은 반박할 점이 많이 있다고 비판한다(孫良誠, 2006). 또한,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모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자신들의 고유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영어단어를 무리하게 단순 암기한다면 언어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정신적인 손상까지도 입을 수 있다고 유아기 영어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네 나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아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만 교육부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연극이나 노래와 춤 등으로 영어를 배우는 ‘놀이식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빨리 배우기보다는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유아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조차 유아발달단계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적절한 양의 영어교육은 타협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다.

〈표 III-4-1〉 각 나라의 영어교육 정책 현황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시작 시기	초 3학년	초 5, 6학년	초 3학년	초 3학년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 편성 여부	×	×	×	×
유치원 영어교육에 대한 정부지침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허용	특별한 지침 없음	특별한 지침 없음	금지. 단 놀이식 교육방식은 허용

IV.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내용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유아기의 적절한 영어교육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1. 연구요약

국내에서 2000년대에 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 등을 다룬 논문들 중에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에 한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기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논문은 총 10편이며 반대하는 논문은 총 9편이었다.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연구진 풀(pool)이 매우 적다고 하겠다. 특히, 반대하는 입장의 논문 9편 중 6편이 연구자가 중첩된다.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연구의 연구진 pool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나, 10편 중 3편이 연구자가 중첩된다.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은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 예를 들어, 유아의 창의력, 영어유창성, 모국어발달수준, 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찬성입장의 연구에서는 검사도구를 통해 주로 유아의 모국어, 영어수준 등 언어능력을 측정했다면, 반대입장의 연구는 지능, 창의성, 사회성 등의 정의적 영역에 관심을 좀 더 두었다. 찬반 양 진영 모두 연구대상자가 협소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지역 선정도 대개 한 지역에서 1~2곳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있고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찬반 양 진영의 연구진이 공동참여하는 협동연구를 제안한다.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할 당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이병민, 2014: 103)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찬반 양 진영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말 그대로 찬성입장은 일찍 영어를 시작한 유아가 모국어, 영어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도 높게 나왔으므로 유아기 영어교육이 유아발달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면, 반대입장은 영어교육을 굳이

일찍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에는 일찍 영어를 시작한 유아가 유리하지만,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되며 무엇보다도 인지적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도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영어 시작시기를 만 6세 또는 만 7세 이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은 현행 초등학교 3학년부턴 편성되어 있는 정규영어교육과정의 시작시기를 앞당기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찬반입장이 팽팽히 나뉘지만, 이 가운데서 공통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EFL 환경에서 ESL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아기 영어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다(서현아 외, 2003; 이귀옥·유남희, 2008b; 황혜신, 2007).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유아들의 가변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유아기 영어교육의 경험이 유무에 따른 영어학습 능력의 차이는 지남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는 반대한 입장을 연구(신동주, 2007)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유아가 처음에는 영어와 한국어 능력 모두 낮았지만, 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만 6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찬성론 연구(황혜신·황혜정, 2000)가 유아의 가변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영어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아기에 영어사용으로 한국어가 서투를 수 있지만 이 역시 유아가 성장하면서 무리 없이 한국어를 습득한다는 연구들에서 유아들은 성장·발달하면서 새로운 환경이나 외부 상황에 적응하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의 가변성은 유아기 영어교육의 찬반논쟁을 잠재울 수도 있고 논쟁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한편, 영어교육이 유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학습장애나 신경세포회로 등에 장애를 발생하는 ‘과도한 강제적’ 영어교육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유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강제적’ 영어교육의 학습량이나 교수방법의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표 IV-1-1〉 국내 선행연구 정리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분석논문수 (2000년대 수행)	- 10편	- 9편

(표 IV-1-1 계속)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연구진 특성	- 10편 3편 연구자 중복	- 9편 중 6편 연구자 중복
	- 연구자 풀(pool)이 적음	
연구방법	- 주로 검사도구로 측정(유아용) 설문조사 및 면담(부모용) - 유아대상 검사는 주로 모국어, 영어 유창성 등 언어영역 측정	- 주로 검사도구로 측정(유아용) 설문조사 및 면담(부모용) - 유아대상 검사는 주로 지능, 창의력, 사회언어적 발달 등 정의적 영역 측정
연구대상	- 검사도구 대상 유아수가 반대 입장 연구에 비해 많음 (최대 225명, 최소 46명)	- 검사도구 대상 유아수가 찬성 입장 연구에 비해 적음 (최대 142명, 최소 10명)
	- 대개 조사대상 지역이나 기관이 한정	
연구결과	- 영어교육에 일찍, 오랫동안 노출 될수록 영어수준(영어유창성)과 모국어수준 모두 높게 나옴 - 제한된 영어학습 및 영어학원과 같은 사교육 지양의 연구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긍정적 연구가 공존	-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 6세 또는 만 7세 이후가 시작시기로 적절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상충될 수 있음 - 유아 영어교육이 유아의 정서적, 심리적, 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는 없음
	-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을 많이 함 - 유아들의 가변성(연령이 증가하면 영어격차 또는 한국어격차를 극복할 수 있음)	
향후 연구과제	- 유아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강제적인' 영어교육이라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의 학습량, 교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규명 필요 - 유아 영어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구 필요	

유아기 영어교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EFL 언어 환경을 지닌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유사한 찬반 논란이 있다.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라별로 다를 뿐이다. 동일 국가에서도 시기마다 영어교육 정책을 달리한 것도 공통된 점이다. 이는 영어교육 정책이 탈사회적, 탈역사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한

다는 사실을 뜻한다. 하나의 사례로서, 중국에서 문화혁명시기 영어는 '적의 언어'로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못했다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금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편성, 운영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사회에서 영어의 위상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처럼 영어교육 정책이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도권 교육기관에 도입할 때는 논쟁이 발생한다. 특히, 전문가 집단들 간의 영어교육의 찬반 논란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있어왔다. 이러한 논쟁으로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의 영어교육 도입도, 금지도 쉽지 않다. 사실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한 적도 없고, 편성할 계획도 없으며, 편성을 논의한 적도 없다. 그런데 유아기 영어교육이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오고 또, 시작 시기도 점점 하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8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 발표 때는 최고조에 이르렀었다.⁷⁾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이후 국내의 유아기 영어교육 또는 조기 영어교육을 긍정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이 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정부정책이 현장 뿐 아니라 학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영어교육 정책수립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다른 교과에 비해 고액이다. 2013년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8만1천원, 수학 7만4천원, 국어 1만6천원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4년 2월 27일).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가구소득에 따라 영어교육이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으로 소득격차가 영어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영어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2018년 수능부터 영어영역의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교육이 다른 과목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영어가 대학 선발의 평가도구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영어사교육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발표로 인해 당시 유치원을 다니던 만 5세아 중심으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만 5세아 학급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2. 정책제언

가.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영어교육 찬반 양진영 학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적은 사례수, 한정된 지역과 기간수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도출하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경계하면서도 유아 영어교육의 찬반 입장은 팽팽하다. 이에 찬반 양 진영이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 종단연구를 설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수준의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시기마다 달리한다. 이는 유아기 영어교육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은 각 나라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할 과제이다. 탈사회적, 탈역사적인 유일무이한 바람직한 유아기 영어교육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일관된 정책방향의 수립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또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영어교육 정책이라면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하겠다.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연구결과로는 찬반 진영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유아기 영어교육이 과연, 유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나.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프로그램 질 관리, 강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하겠다.

1) 비용

EFL 언어 환경에서 영어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으며 ESL 언어 환경에 가깝게 조성하면 할수록 비용은 상승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 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네이버 뉴스, 2014년 7월 2일, “유치원알리미 신뢰성 문제가 있다”).

정부는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치원의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에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의 주범인 영어교육을 잡기 위해 수능에서 절대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에서 영어 프로그램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2) 프로그램 질 관리

유치원에서 유아발달에 적절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것에 대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대진영에서 주로 제기하는 문제는 ‘과도한’ ‘과잉의’ 영어교육의 양과 ‘주입식’ ‘단순암기식’의 교수방법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절한’ 영어교육의 양과 유아발달에 맞는 ‘놀이식’ 영어교육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므로 과도한 영어교육 시수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영어 프로그램이 과연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진이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1회 약 30분 정도의 영어교육을 하면서 노래, 춤, 율동과 더불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도 골고루 제공하고 있었다. 읽기, 쓰기도 유아 연령에 따라, 발달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오히려 유아발달에 맞는 ‘놀이식’ 영어교육은 아닌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대목이다.

‘놀이식’ 영어교육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목적을 갖고 제공된다면 ‘주입식’ 영어교육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닌지,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이다.

표면적인 교수활동만으로 '놀이식' 또는 '주입식'이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학계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교사

교육은 교사의 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영어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양질의 유아대상 영어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육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EFL 환경에서 원어민 교사에 의한 영어교육에 대한 갈증은 크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에 자질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왔으며 현재 유치원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은 금지되어 있다. 현재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외부 강사의 자질이나 전공,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도 등 측면에서 강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가 된 강사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강사의 질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의 영어능력이나 모국어능력은 높다는 긍정적인 연구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에 비해 창의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부정적인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변인이 유아 영어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찬반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이다.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의 영유아 자녀들이 영어수준뿐 아니라, 모국어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ESL 환경을 조성한 사교육 기관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며 과도한 영어학습은 유아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면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들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올 것을 기대하였다. 실제, 만 5세 유아 기준으로 취원율이 2012년 81.1%에서 2013년 96.1%로 급상승하였다(이정원·이혜민, 2014: 16).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가 여전히 존재한다.⁸⁾ 이는 무상교육·보육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

와는 맞바꿀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유아대상 학원은 매일매일 평균 4.9시간(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 2009: 67)을 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 위생 등의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근거 법률인 「학원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유아에 특화된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전부터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제정 및 원어민 강사 채용, 과도한 수업료 책정 등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

8) 물론 미취원 유아들 모두가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미취원 유아의 대부분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 내부자료(2014a).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 교육부 내부자료(2014b).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
- 김민진(2012).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유아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5), 459-486.
- 김형재(2011). 조기 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일(2008). 학부모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기영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마송희(2003). 유아의 영어교육경험, 상위언어능력, 모국어 및 영어어휘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53-272.
- 마송희(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21-245.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부경순(2003b).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 초등영어교육. 9(2). 123-148.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유현(2006). 과잉조기교육이 뇌를 손상시키는가? 영어교육, 언제 그리고 어떻게?-뇌발달과 외국어 조기교육-. 2006 한국마음·두뇌·교육협회 추계심포지움 제 2회 마음 및 두뇌발달과 바른 교육 대토론회. 67-74.
- 서유현(2014). 뇌과학이 들려주는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 굿바이 영어 사교육. 50-91.
- 서현아·최미현·좌승화·천희영(2003). 취학전, 후 영어교육 환경과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 유창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299-319.

- 신동주(2007).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1(2), 349-374.
- 신의진(2002). 조기 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42.
- 우남희(2006). 유아의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 분석. 생활과학연구, 11, 126-133.
- 우남희(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53-474.
- 우남희·김현신(2004). 아동의 지능,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학습과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25(1), 1-12.
- 우남희·서유현·강영은(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16.
- 이귀옥·우남희(2008a). 유아의 영어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있는가?. 이중언어학, 38, 305-340.
- 이귀옥·우남희(2008b). 부모변인과 유아의 영어 학습과의 관계 연구. 생활과학연구, 13, 73-82.
- 이병민(2014). 조기 영어교육, 거품빼고 진실캐기. 굿바이 영어 사교육. 94-164.
-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서문희·최윤경·박금혜·백미화(2012).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2).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장명림·김문정·김혜원(2010). 유아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대책. 부산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중간보고서.
- 장유경·엄운주(2003). 유아기 영어 학습경험이 상위언어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1). 69-81.
- 최지영(2008).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2(2), 189-214.
- 최지영(2009). 균형적 언어접근법을 통한 유아 영어교육의 효과: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103-133.
- 통계청 보도자료(2014년 2월 27일),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하연희·천희영(2005). 유아의 영어교육 시작연령과 교육기관에 따른 모국어와 사회성 발달. 아동연구, 14, 35-53.
- 한유미·조복희(1999).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 정도와 상위언어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9-216.
- 황혜신·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황혜신(2004).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3(4), 497-506.
- 황혜신(2007). 유아의 조기영어교육과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생활과학지 16(4), 699-710.
- Gibbons, J. (1985). The silent period: An examination. *Language Learning*, 35, 255-267.
- Naiman, N., Frohlich, M., Stern, H., & Todesco, A. (1978). *The good language learner* (Research in Education series No. 7). Toronto, Canada: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on Education.

[신문기사]

- 국제신문(2014년 9월 2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자료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_print.asp?code=0300&key=20140904.2, 자료 검색일: 2014년 9월 4일)
- 네이버뉴스(2014년 7월 2일) 유치미알리미 신뢰성 문제가 있다(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8&aid=003290379>, 자료 검색일: 2014년 7월 2일)

[일본자료]

アレン玉井光江, 上野めぐみ(2000). 幼児英語教育について. 文京女子大學研究紀要, 2(1), 177-193.

溝上由紀(2012). 子どもの英語教育は本当に必要か：早期英語教育を推進する言説の批判的分析. 愛知江南短期大學紀要, 41, 17-38.

吉岡由佳(2014). 幼児英語教育の實踐研究：Total Physical Responseがアウトプットに与える影響. くらしき作陽大學・作陽音樂短期大學研究紀要, 46(2), 53-69.

北村豊太郎(1997). 第1部 第2章 アンケートに見る賛否. 小學校からの外國語教育 (樋口忠彦他 編, 1997). 研究社出版.

秀眞一郎, 木本有香, 中島信吾, 烏田直哉, 小野克志, 志濃原亞美, 横井一之, 田中卓也(2013). 幼児教育現場における英語活動の實態とその方向性. 吉備國際大學研究紀要, 23, 21-28.

市川力(2004). 英語を子どもに教えるな. 中山新書ラクレ.

泉恵美子(2007). 小學校英語教育における擔任と役割と指導者研修. 京都教育大學紀要, 110, 131-147.

椎名玲, 吉中由紀(2008). 専門家が警告 '早いほうがいい'はウソ幼児の英語教育が心をこわす. 週刊文春・文芸春秋 [編], 50(44), 41-43.

鶴蒔靖夫(2010). 0歳児からの英語教育—英會話スクール‘メガブルーバード’の挑戦. IN 通信社.

和田陽子(2009). 幼児期からの英語教育に関する研究. 保育研究, 37, 28-34.

Kitano, S. (2008).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Japan: Policy and pedagogy.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3-17.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일본 문부과학성)(2004). Report on survey of attitudes toward English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프레지던트 <http://president.jp/articles/-/13025> 자료검색일: 2014년 8월 11일

아사히dot기사 <http://dot.asahi.com/dot/2013032200008.html> 자료검색일: 2014

년 8월 11일

- 아사히dot기사 <http://president.jp/articles/-/13025> 자료검색일: 2014년 8월 11일
- 마이ナビ뉴스 <http://news.mynavi.jp/articles/2013/04/19/worldwidekids/> 자료
검색일: 2014년 8월 11일
- NHK뉴스 기사 <http://www.nhk.or.jp/seikatsu-blog/200/169500.html> 자료검색
일: 2014년 8월 11일

[중국자료]

- 揚子晚報 http://edu.china.com.cn/xueqian/2013-09/06/content_29944020.htm,
자료검색일: 2014년 8월 11일
- 中國教育新聞網 http://opinion.jyb.cn/gnjy/201408/t20140807_593243.html, 자료
검색일: 2014년 8월 14일
- www.law-lib.com [http://www.law-lib.com/fzdt/newshtml/20/20130322130007.
htm](http://www.law-lib.com/fzdt/newshtml/20/20130322130007.htm) 자료검색일: 2014년 8월 11일
- 學習周刊 http://epaper.oeeee.com/H/html/2013-09/03/content_1926825.htm 검
색일: 2014년 8월 14일
- Hu, G.(2005).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China: Policies, Progress, and Pro
blems. *LANGUAGE POLICY*, 4(1). 5-24.

[대만자료]

- Ming Fang Hesieh(2011).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Taiwan:
students' experiences and beyond. *Language Awareness*, 20(3), 255-270.
- 孫良誠(2006). 學齡前實施英語教學應有的思維. *國教新知*, 53(2), 41-47.
- 臺灣教育部(1993). 學齡前幼兒英語教育政策說帖.
- 臺灣教育部(2013). 幼兒園工作規程[修訂稿].

연구보고 2014-06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삼신인쇄 02) 2285-575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15-8 93330